



# 한국 교육 50년의 산 증인, 김정섭

⑥ 인터뷰\_신국원(총신대 교수,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

“역사란 사람들의 살냄새 나는 이야기다.”

한국 교육 50년의 생생한 역사, 은퇴 이후에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독교교육을 위해 달리고 계신 김정섭 장로님(전 대광고, 영락교 교장이자 현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신국원**  
(이하 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처음 뵈었을 때 영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향이 어디신지요.

**김정섭**  
(이하 김) 경북 의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요. 8남매의 다섯째인데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모교회가 1905년에 창립하여 금년에 115년이 되었습니다. 면도 아닌 리 소재지인 시골에 어떻게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중학교 6학년 때 지금으로 따지면 고3일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전상을 입고 제대하여 귀향한 뒤, 54년에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지금까지 새문안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 교육학을 전공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선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물질 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가 되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교육학에 들어갔죠. 대학과 대학원에서 6년을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훌륭한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임한영 박사, 정석해 선생님, 최현배 선생님, 직접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백낙준 박사나 신과대학의 지동식 목사님 등 그 시대의 존경받는 분들을 많이 만났지요.

**신** 갑자기 연세가 궁금해집니다.

**김** 1931년생이니 85세지요. 유소년기는 일제



강점기 말기로 일제의 착취로 가난에 굶주렸고, 청소년기에는 광복 이후 혼란으로 인하여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한국전쟁에는 학도병으로 지원, 중군하여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했었죠. 그때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좌절되고 대퇴부골절상을 입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제대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대광학교와 영락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지내고 은퇴했지요. 지금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 뿐이네요.

**신 ■ 살아 있는 한국의 근대사이십니다. 이후 대학원을 마치시고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는지요.**

**김 ■** 61년부터 73년까지 대광고등학교에서 13년을, 이후 영락에서 정년까지 38년을 교직에 있었습니다. 교원으로 재직한 1961년부터 97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기로 변화와 혼란이 거듭되면서 교육이 정도를 걸을 수 없는 시기였지요.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억압되고, 교육에서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폐해가 많았습니다.

**신 ■ 처음 가르치신 제자들의 연배가 제 또래겠습니니다.**

**김 ■** 부임 당시의 대광은 전성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르친 학생들 중엔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60대쯤 되었으니 그렇겠네요. (허허)

54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강신명 목사님이 계시는 새문안교회에 등록하고 한 15년간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마흔하나에 장로가 되기도 교육부서에 쪽 있었습니니다. 7·80년대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새문안교회 청년들이 잡혀가는데 심정적으로는 청년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제가 공직에 있고 교회 장로로서 이편에 서지도 못하고 저편에 서지도 못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기까지는 교직에 있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점차 사회가 변하면서 교육자로 제가 느낀 것은 ‘그렇다면 학교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는가, 기독교사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야하는가’였습니다. 90년에 ‘교과 지도를 통한 신앙교육’이라는 연구발표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일이 계기가 되어 웨슬리(W. Wesley) 선생님과 신국원 박사님과 만나게 되었지요.



**신** ■ ■ ■ 선생님께서 영락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94년에 귀국 후, 갑자기 웨슬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면서 뵈었지요. 그때 선생님이 교과과정 개발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국정교과서를 사용해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김** ■ ■ ■ 대광학원에 있을 때부터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학교교육이 너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교목실은 교목실대로, 수업은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수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어떻게 통합하는가가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과정이 있으니 이것을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할 때 기독교적으로 내용을 다루어 보자, 분명 기독교와 관련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하고 시도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과 한 1년 동안 교과서를 분석했습니다. 개념, 단어, 명제, 인물, 사건, 작품, 주제 등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려내어 표를 만들고 학습지도안 시안에 넣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년을 실행하고 90년에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런 시도는 극히 초보적인 것이었는데 웨슬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묻더군요.

**신** ■ ■ ■ 그런 발표를 할 때, 다른 기독교학교도 초청을 하셨나요?

**김** ■ ■ ■ 네, 기독교학교연합회의 연례계획사업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전국에 있는 회원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진행했었지요.

**신** ■ ■ ■ 그렇다면 장로님께서 교육 일선에서 은퇴하신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섬기고 있는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그때에도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계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 ■ ■ 연합회는 1952년에 부산에서 ‘기독교학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지금의 한국기독교학교연합

회로 개명되었습니다. 1950년 6.25전쟁으로 학교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해서 피난학교를 열었을 때 백낙준 박사가 문교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백낙준 박사와 당시 한국교회협의회(KNCC)의 총무였던 유호준 목사, 문창교회 김우현 목사가 주관이 되어 28개 기독교학교 책임자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부서진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이후 59년부터 교장 수련회 및 교목 연수회를 시작으로 64년도에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 기독교교육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기독교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신** ■ 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제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김** ■ 기독교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사립학교 평준화 이후 기독교와 관련 없는 학생이 3분의 2 이상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해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환경, 제도, 인간관계, 문화와 교수-학습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조성되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를 성경적 관점으로 조망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학습의 원리로서의 기독교세계관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교육철학이 없어요. 진, 선, 미 등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은 없고, 경제, 기술 등 실용성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에는 이와는 다른 철학과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철학을 기독교세계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 ■ 지금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소속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김** ■ 7·80년대 이후 점점 늘어나 지금은 131개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130여 년 전에 세워진 미션학교와 광복 이후 설립된 교회와 관련된 학교들입니다. 기독교학교 역사는 네 시기로 나뉩니다. 초창기 설립부터 74년 교교평준화정책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사립학교법 파동 전, 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30년 기독교학교 역사에서 교교평준화는 기독교학교의 성격이 확 바뀌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교의 기회가 확장된 것입니다. 무선배정으로 안 믿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신** ■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세계관에서 교육철학을 찾으신다고요?

**김** ■ 오늘날 기독교학교 현장에는 교육과 신앙, 즉 지성과 영성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이론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크리스천 오버만(Christian Overman)과 돈 존슨(Don Johnson)이 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을 기독교세계관 통합모형 BWI(biblical Worldview Intergration)으로 삼는 방안과 반 브루멜른(Harro Van Brummelen)이 창조, 타락, 구속 등 구속사적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 처럼 교과과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주어진 경우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브루멜른의 방법에 매력을 느낍니다.

\*편집자 주 : 월드뷰 2014년 5월호에서 “크리스천 오버만”의 인터뷰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네이버블로그 '크리스천 오버만' 검색

**신** ■ 아무래도 기독교적 교육의 교과과정 분야에선 제일 앞서가는 이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체제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안에서 기독교교육을 시행하는데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주어진 교육 내용을 교사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재구성을 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사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구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세계관으로 해당 교과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어야해요. 그래서 교사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 ■ 기독교학교장들은 선생님의 그런 열심과 헌신에 얼마나 공감하시요.

**김** ■ 공감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입시준비에도 시간이 모자라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혁 의지를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데, 문제는 교장의 임기가 짧다는 데 있습니다.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의 정년이 62세, 임기가 4년, 한번만 중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학교에서 오랜 연차가 쌓인 분들이 교감, 교장이 되는데 정년 마지막에 교장 임기 4년을 빠듯하게 채울 수 있어 교육의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감 연수반을 별도 개설하고, 학교에 오래 계시는 교목님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교육철학이 없어요.*

*진, 선, 미 등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은 없고,*

*경제, 기술 등 실용성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에는 이와는 다른 철학과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철학을 기독교세계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 ■ 더러 이런 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 갖는 교사들을 만나기 쉽진 않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연수회에서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기’ 관련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교단이나 우리 연합회에도 기독교 교사를 기르는 기관이 없지요. 미국의 개혁교단에서는 칼빈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고백으로 기독교학교를 섬기려고 오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을 연수할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학교가 없어졌거나 축소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있지요. 기독교에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고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교회로 오게끔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첫 번째 열쇠는 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 ■ 교육 이념, 그리고 목표와 목적이 있고, 그 위에 교육철학과 세계관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 ■ 그렇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기독교교육철학서설’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기독교학교에서는 ‘기독교주의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의 철학,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 틀에 따라 지식관, 학생관, 사회관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학문적인 작업은 학자들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일본의 교장 선생님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서는 SCSCB(B.C주 기독교학교연합회)에서 작성한 교육과정안을 각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 ■ 기독교학교연합회에서 일하게 된 동기와 연합회의 사역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김** ■ 교장으로 재직 중 연합회 임원으로 일하면서 학교연합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 발전시키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임 후에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2002년에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교사연수(재교육)제도를 확대개편하고, 교회와의 유기적 관계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봉사해왔습니다. 그동안 종교교과서를 세 번 개편하여 교육당국의 인정·승인을 받아 간행·보급하였으며 특히 지금 사용 중인 교과서 <종교와 삶>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이외에 새로 개발한 교과서’로서 앞으로 보다 더 ‘기독교적인 교과서’를 간행할 수 있는 길을 튼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다양한 연수를 합니다. 교장, 교감, 교목, 교과교사, 신입교사를 대상으로 일 년에 5~6차례 연수를 진행합니다. 매 연수회마다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고 교과교수-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팔로우업(follow up)을 해야하는데 여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몇몇 학교를 상대로 교과교육 연구반을 운영해보려고 해요.

\* 편집자 주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홈페이지 [acsk.org](http://acsk.org) / 대표전화 02)3674-4431

**신** ■ 다음 세대나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 ■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교육할 때보다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단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매스 미디어는 물론이고, SNS까지 영향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란 걸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제와서 지금껏 안한 인성교육을 해보자는 건데, 이것을 효도, 성실, 정직 등 8가지 도덕 항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평가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니까(결국 삭제되었지만) 대치동에 인성교육학원이 난립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게 교과서와 교안을 만들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목을 실천하여 체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풍조에서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어렵겠지만 신념을 굽히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학교를 자진 폐교하면서도 불의에 항거한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았어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이상을 꿈꾸는 기독교학교의 비전을 버리지 않고 견지하고 있었지요. 이제도 꿈을 잃지 말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삶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이제 말로 교육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신**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저를 지도하고 도와주신 스승과 선배들에게도 감사하고요. 특히 전 대 광교장이신 고(故) 이창로 장로님과 때마다 격려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웨슬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 박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께서 기독교학교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 ■ 말씀 감사합니다. 🍷

